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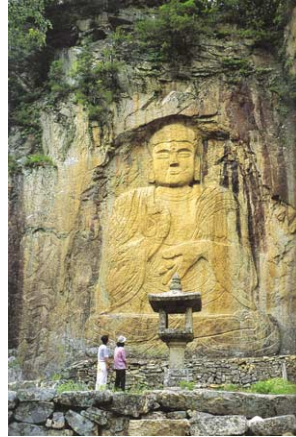


사진 2



사진 3

## 석등[石燈] - 고려시대 사각석등 ⑤-2

금강산 묘길상 마애불(보다 정확한 명칭은 '묘길상암터 마애아미타여래좌상') 앞 석등은 흔히 보던 상·하대석의 양련(仰蓮), 복련(覆蓮) 등과 같은 연꽃무늬가 사라진 대신,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요소와 기법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과 같은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의 주두(柱頭:기둥머리) 꺾대 모습이나 기둥의 모서리를 쇠시리 한 수법, 석등과 함께 돌 하나를 다듬어 3층의 등계(燈階)를 갖춘 모습 등이 그것이다.

기둥 모서리나 문살의 표면을 모를 접어 두 골이 나게 한 것을 '쇠시리'라고 하는데, 목조건축에서 나무의 모서리나 표면을 오목하거나 볼록하게 다듬는 일을 대개 '쇠시리한다'라고 말한다. 골이 한 줄이면 그것을 외사, 두 줄이면 쌍사라고 부르며, 묘길상 마애불 앞 석등의 간주석 모서리 역시 나무기둥을 외사로 쇠시리 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모습이 간주 아래 위에 놓인 주두의 꺾대와 어우러지면서 석등 간주석은 잘 다듬은 나무기둥을 연상케 한다. 화사석 부분은 잘라낸 대나무 한 마디 형태를 띤 4개의 기둥돌로 세웠다. 여러 가지 장식적인 요소를 다 털어버려서 그런지, 석등은 간결하고 소박한 가운데 대범하고 웅건한 맛을 풍기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석등 전체의 균형에 있어 간주석에 비해 윗부분의 화사석이 다소 크게 느껴져 균형감이 깨진 느낌이 든다.

충주 미륵대원의 사각석등은 사각석등의 일반적인 형태를 따랐지만, 화사석 부분에 굽직한 대나무를 한 마디씩 잘라 세운 듯한 짤막한 네 개의 기둥돌이 인상적이다. 이 네 개의 짧은 기둥돌 때문인지는 몰라도 석등 전체가 작달막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오는 반면, 복련 장식을 한 하대석은 반구형에 가까워

사진1 금강산 묘길상 마애불 앞 석등// 고려시대// 전체높이 372cm//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홍선 지음, 《석등》한국불교문화의 이해 1(늘와, 2011), 374쪽.

사진2 금강산 묘길상 마애불상과 그 앞의 석등 (홍선 지음, 앞의 책, 378쪽)

사진3 충주 미륵대원 사각석등// 고려말기// 전체높이 246cm// 충청북도유형문화재 315호// 충청북도 청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홍선 지음, 앞의 책, 380쪽)



사진 4



사진 5



사진 6

유난히 도톰해 보인다. 사각의 간주석은 상·하대석 아래 윗면에 네모지게 홈을 파서 세워 넣었고, 간주석 서쪽 면에만 무늬를 새겨 치장을 한 것이 이색적이다. 무늬를 보면 화염형의 장식 안에 다시 비슷한 형태의 무늬를 가운데 두고 양쪽 아래에 고사리 순처럼 도르르 말린 형태가 조각되어 마치 타오르는 촛불처럼 보인다.

고령 대가야박물관의 사각석등은 원소재지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고령 읍내 가야공원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양식상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긴 팔각의 간주석 위에 사각의 화사석이 올라가 있다. 석질 뿐만 아니라 돌을 다룬 수법이 서로 달라 원래의 석등 부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화사석을 네 개의 기둥돌로 구성된 고려시대 사각석등과는 달리 돌 하나를 네모나게 다듬어서 동서남북 네 군데 화창을 마련한 전통적인 방식을 취하였다. 아무래도 이러한 기법이 네 개의 기둥돌로 구성된 양식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앞선 것으로 보인다. 또, 화사석만 빼고 보면 석등 형태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앞 석등 또한 화사석만 사각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팔각석등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하대석·간주석·상대석·지붕돌 등이 모두 그러한데, 마치 앞의 고령 대가야박물관의 사각석등을 연상케 한다. 통일신라시대 양식과 고려시대의 양식적 특성을 섞어 놓은 듯하며, 특히 간주석에는 뚜렷이 돌을새김 된 동물 한 마리가 눈길을 끈다. 이는 흔히 무덤의 망주석(望柱石)에서 볼 수 있는 양식으로, 한 쌍의 망주석에 한 마리는 올라가는 모습으로, 다른 한 마리는 내려오는 모습으로 새겨진 담비나 세호(細虎)를 보는 것 같다. 망자의 무덤 양 옆에 영혼이 드나드는 길로 망주석을 세우고, 여기에 동물무늬를 양각한 것은 그 영혼이 드나드는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천 직지사 대웅전 앞 석등의 동물무늬가 망주석에서처럼 망자를 위한 것인지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며, 석등 한 쌍을 세웠다면 어디에 세웠는지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KEA

사진 및 자료 / 홍선 지음,〈석등〉(늘와, 2011)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4 고령 대가야박물관 사각석등// 고려중기// 전체높이 306cm//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홍선 지음, 앞의 책, 382쪽)

사진5 김천 직지사 대웅전 앞 석등// 고려말기// 전체높이 268cm//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홍선 지음, 앞의 책, 386쪽)

사진6 조선 용릉(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 추존 왕 장조(莊祖))의 망주석 (2008. 5. 28 필자 촬영)